

배포일시	2026년 2월 10일	보도일시	2026년 2월 10일(즉시)
사진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쪽수	1쪽(본문 1)
담당자	유민상 팀장(02-6959-8084/media@kdaxa.org)		

DAXA, 5대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 금융당국 "내부통제 취약점 엄중 인식... 시스템 전면 재점검" 주문에 즉각 화답
- 내부통제 자율규제 고도화 및 사업자별 내규화 추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등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업계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 직후 금융당국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한 데 대해, 업계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이행 조치에 나선 일환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출범한 '내부통제 고도화 TF'에는 DAXA 상임부회장과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이 모두 참여해 실행력을 담보했다. TF는 향후 ▲현행 내부통제 자율규제 진단 ▲재발방지 및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DAXA 자율규제 규정 상세 보완 ▲사업자별 내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엄중한 인식을 업계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계의 높은 자정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고도화된 내부통제 프로세스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정책본부	책임자	본부장	홍 균	02-6959-8084
		담당자	부장	선민수	02-6959-8087
	홍보실	홍보팀장	차장	유민상	02-6959-8084